

#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금리 ↓ 막판 가계대출 수요 증가 우려

채권 금리 2년여 만에 최저 기록  
코픽스 전월대비 0.04%p 떨어져  
주담대 변동금리 연 3.76~6.55%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도 앞뒤

가계대출 증가흐름 지속 예상  
금융당국, 추가 정책 필요성 대두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산정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조달자금비용지수)가 떨어지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은행권은 가산금리를 올려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시장금리가 내려가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대출금리가 내려간 만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막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6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3.52%로 전월(3.56%) 대비 0.04%포인트(p)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6개월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잔액 기준(3.73%)과 신잔액 기준(3.17%) 코픽스도 각각 0.01%p, 0.03%p 하락했다.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6~6.554%를 나타냈다

코픽스가 하락한 이유는 은행채 등 채권 금리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



주담대 변동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기준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연 3.356%로 지난 2022년 4월 26일(연 3.334%) 이후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픽스가 하락한다.

주담대 변동금리 하락으로 막판 '내집 마련' 수요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출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의 2단계 도입을 이달 추진하기로 했지만 9월로 미뤘고, 내년 초로 예정했던 3단계 적용은 내년 7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면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차주별 주담대 한도는 약 3~9% 줄어들게 된다.

주택시장 회복세와 주담대 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 전 막판 주택 영끌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 총액은 710조1224억원으로 지난달

(708조5723억원) 대비 1조5501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552조 1526억원에서 554조 264억원으로 1조8738억원 급증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선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변동형 주담대 준거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주택 매수세에 나서는 수요자 증가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회복세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 막차를 탑승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가산금리를 더 올릴 경우 또 다시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가산금리 인상도 조심스럽다"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GA, 엄정 제재”

금감원, 주요 위법행위·사례 발표  
지난 4년간 등록취소·35억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실적이나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 관행을 일삼는 보험법인대리점(GA)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컴슈랑스 영업'의 경우는 최고경영자(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권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

을 의미한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돼 문제가 됐다.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금전 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고,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가능하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롯해, 시정·중지·계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한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에게도 해임권고·감봉을 부과하고,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90일), 과태료(최대 3500만원) 등을 처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보증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고객 신뢰로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신한은행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  
정상혁 은행장 '내부 통제' 강조



지난 15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세계 무대에서 오래도록 사랑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균건한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해외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 통제 문화를 공고히 하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5일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를 개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는 신한은행의 10개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과 해외점포장, 글로벌 전략 및 사업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글로벌 사업전략 등을 논의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 워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신한은행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들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 방향에 다른 글로벌 사업전략을 논의하고, 이사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신한은행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해외법인의 순이익은 약 1401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약 8%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영업현장의 해외점포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업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주요계획을 공유한다. 또 전략·준법·자금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주재원 50여명과는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지향점과 비전을 논의하는 글로벌 경영전략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 15일 오후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에서 열린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원 대표이사(왼쪽 네번째)와 소속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빗썸

## “이상거래 꼼짝마” 빗썸, 시장감시위 신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빗썸 사무실에서 시장감시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 6인을 위촉했다.

이재원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최희경 준법감시인, 장두식 시장감시실장, 박중구 투자자보호실장, 서승원 법무실장, 외부 전문가로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초빙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 하나銀, 퇴직연금 DC 수익률 5분기째 1위

원리금비보장 14.83%, 보장 3.85%

은행권 전체 1위다.

하나은행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익률이 5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기준 최근 1년간 하나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원리금비보장상품 14.83%, 원리금보장상품 3.85%다. 2023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다.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도 36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 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7.2%로

하나은행은 2021년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원금은 보장되면서 매월 이자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형 월 지급식 기타과생결합사채(DLB)'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연금 전문 컨설턴트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전국 6개 영업점에 연금 VIP손님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연금 더드림라운지' 운영 등 손님의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